

LG CNS 죽전 데이터센터에 네이버클라우드 입주

코로케이션 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금 수천억원 규모 추정



LG CNS의 죽전 데이터센터에 네이버클라우드가 입주한다. LG CNS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죽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LG CNS 최근 매출액(5조9826억원)의 2.5% 이상으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고객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공간을 임대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다.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2033년 5월까지 약 8년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월 단위로 계약금을 지급한다.

죽전 데이터센터는 퍼시픽자산운용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8280억원을 투자한 하이퍼스케일 시설이다. LG CNS는 2022년 3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한 죽전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했다. 데이터센터 총 두 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지난해 12월 준공했고 나머지 1개 동은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약은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데이터센터가 주요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LG CNS는 이번 계약으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GAK) 3곳에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데이터센터 자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올 상반기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체결된 초대형 계약 중 하나"라며 "데이터센터 시장 선도 사업자인 LG CNS의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LG CNS의 클라우드·AI 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56%인 3조351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해 전체 매출의 약 59%(7174억원)를 차지했다. LG CNS 관계자는 매출 성장의 배경으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사업 매출이 본격화된 게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CNS는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상암 IT센터, 가산센터와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거점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자산 운용사들과 협력해 하남·죽전·삼송 데이터센터 등에서 수십 메가와트(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데이터센터 DBO 사업 중 설계·컨설팅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한다.

이재은 기자 jaeeunlee@chosunbiz.com

과기정통부 조사..."상세 원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와 분석 중"

과기정통부 조사..."상세 원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와 분석 중"



삼성페이 결제 장애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에 결제 장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결제를 위해 단말기에 지문인식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에러로 지문 인식이 불가했다. 2025.6.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달 초 약 3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삼성페이의 결제 장애 원인은 삼성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방화벽 오류로 24일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 조사 중간 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했다.

삼성페이는 지난 2일 오전 약 3시간 30분 동안 카드 결제 및 등록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장애 당시 삼성전자는 일부 카드사와 전용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장애가 일어나자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KT 목동 데이터센터로 전환해 서비스를 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조사에서는 수원 데이터센터에 있는 카드사와 연결된 전용 네트워크 내부 방화벽이 구체적인 오류 지점으로 지목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내 방화벽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했으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다 세부적인 원인은 네트워크 구성 장비 제조사와 분석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킹으로 인한 방화벽 작동 오류 가능성에 과기정통부는 삼성SDS에서 실시한 보약 취약점 정기 점검 및 장애 이후 재점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SDS와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 AI 혁신 재가동...MIT와 반도체 에이전트 연구

다시 불붙는 통신사 AI 경쟁

제조 AI 분야...산업현장 응용 연구
울산 AIDC 구축·에이닷4.0 개발도
KT는 MS...LGU+은 엑사원 협력
하반기엔 AI·통신 동시 경쟁 예고

SK텔레콤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응용 기술 확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기술 개발도 추진하는 등 그동안 해킹 사고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AI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4일 SK텔레콤의 영업 정상화를 기점으로 하반기 이동통신 업계의 AI 신사업 경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MIT 교수진과 '배터리·반도체 응용을 위한 다중 에이전트(비서) 대형언어 모델(LLM)'을 주제로 조만간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올해 2월 MIT 주도로 SK텔레콤·오픈AI·코카콜라 등이 모여 출범한 산학협력 기구 'MIT 생성형AI 임팩트 컨소시엄' 협력의 일환이다. 컨소시엄은 최근 SK텔레콤 지원 과제를 포함한 55건을 선정했다.

SK텔레콤은 배터리·반도체 분야 소재와 공정을 개선하는 등 실제 산업현장에 응용 가능한 AI 기술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력 산업 분야에 AI를 공급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동통신사 AI 사업 동향

SKT

-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 '에이닷' 차기 모델·유료 서비스 출시
- MIT 컨소시엄 공동연구 본격 착수

KT

- MS 합작 한국형 AI 모델·클라우드 개발
- AX 사업조직 'AX 딜리버리 전문센터' 신설
- 팔란티어와 AI·데이터 분야 협력

LGU+

- 파주 AI 데이터센터 구축
- LG AI연구원 '엑사원' 기반 추론형·온디바이스 AI 개발
- AI 에이전트 '익시오' 유료 버전 출시

것이다. 회사는 올 초 컨소시엄 발족 소식을 알리면서도 “제조 AI 등 차세대 AI 분야를 연구과제 우선순위로 두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라며 “제조 AI 분야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와 AI 물성 예측을 주요 연구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를 포함해 최근 그룹 차원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 추진 중인 7조 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맡았고 자체 모델 '에이닷엑스(A.X) 4.0'과 유료 서비스 '에이닷비즈'도 하반기 출시를 준비하는 등 AI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AI 사업은 4월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관련 조직들의 보

고가 미뤄지는 등 당달아 차질을 빚었지만 이날 영업을 재개되며 함께 전열을 재정비한 것이다.

이에 하반기 통신업계의 AI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KT는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 4000억 원 규모 협력의 첫 결실로 한국형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전담조직 'AX 딜리버리 전문센터'로 출범하며 고객사 모집에 나선 상태다. 미국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도 협력을 강화 중이다. LG유플러스도 파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어 LG AI연구원과 손잡고 추론형과 온디바이스(내장형) 등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익시오'의 유료 버전도 연내 나온다.

경쟁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데다 간 AI 전문가 배경인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관련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대표 AI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월드 베스트(세계 최고) LLM'과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통신사들도 대규모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로 유력 사업자로 기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 베스트 LLM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려면) AI 기업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윤수 기자

kt ds, AX 분야 세자릿수 경력직 채용

**AI·클라우드 사내 교육 강화
연내 300명 규모 전문가 양성**

KT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 kt ds (대표 이상국)가 AX(AI Transformation)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인재 영입과 내부 전문가 육성에 본격 나선다.

kt ds는 올해를 ‘AX 전문성 확보 원년’으로 삼고 AI·클라우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세자릿수 규모의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AI 응용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등 9개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AI 개발 및 프로젝트 경험자,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수행자, MS 솔루션 AX 컨설팅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통신·금융·유통 등 주요 산업의 AX 전환을 주도하고 그룹의 AI 도입 및 확산, 필수 에이전트 빌더 개발, AI 게이트웨이, AX 플랫폼 구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은 kt ds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7월 4일까지 1차 접수를 마감한 후 추가 모집도 이어질 예정이다.

kt ds는 이번 외부 인재 영입과 함께 내부 인력의 AX 역량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신기술 중심 직무 체계 개편과 함께 기존 5단계 호칭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페이밴드)을 폐지했다.

또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DS University’를 중심으로 클라우드·AI·소프트웨어·인프라 아키텍처 분야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MS Evangelist 학습 패키지,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 학습 동아리, 자격증 취득 장려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안에 약 300여 명 규모의 AX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에게는 최고기술전문가(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해 회사 대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한다.

근무 환경도 개선됐다. 자율좌석제, 재택근무제, 거점 오피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형 클라우드·AI 환경을 제공하는 ‘Play-Ground’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습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준현 kt ds 경영기획총괄 전무는 “외부 인재 영입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AX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

삼성, 매년 청년 AI 인재 2000명 육성... '인공지능 강국' 힘 보탠다

'SW 아카데미', AI 요람으로 개편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매년 2000명의 '인공지능(AI) 실무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한다. 최근 6년여간 사회 공헌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매년 수백 명씩 교육해 '1만(萬)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워낸 삼성이 이제 'AI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AI 전문가를 장차관급으로 잇따라 지명하는 등 혁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재 육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I 인재 육성 나선 삼성

삼성은 24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매년 2000명씩 선발, 1년간 AI와 소프트웨어(SW)를 무상으로 가르치고 인당 1200만원의 교육 지원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SW·AI 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12기 수료식에서였다. 삼성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98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말부터 삼성이 SW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 'SSAFY'의 누적 수료생은 총 1만명을 돌파(1만125명)했다.

이날 삼성은 그간 SW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프로그램명도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 2.0)'로 바꾼다고 밝혔다. 총 1600시간이었던 교육 시간을 1725시간으로 늘리고, 이 중 60%에 달

SSAFY

원래는 삼성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의 약어다. 교육의 중심이 SW에서 AI로 바뀌면서 이제는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I academy For Youth)'란 뜻이 됐다.

미취업 청년 1년간 무상 교육

AI 프로그래밍·프로젝트 실습 등 서울대·카이스트 교수진이 교육 고급 과정 마치면 바로 실무 가능 하루 8시간 수업, 월 100만원 지원

하는 1025시간을 AI 교육과 AI 활용 실습에 배정하기로 했다.

모든 교육은 철저히 실무(實務) 중심으로 이뤄진다. 1학기에 AI 입문 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을 익힌 뒤엔 AI 프로그래밍 등 중·고급 교육을 받고, 2학기부터는 AI 실습 특강을 들으며 다른 교육생들과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등 언제든지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등 AI 교수진을 비롯해 전문 강사들이 직접 AI 교육을 진행한다"며 "AI 교육을 위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이 '독한 교육'을 예고한 만큼, 새 프로그램이 AI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

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SW 중심이었던 SSAFY 역시 대학의 2~3년짜리 SW 전공을 1년으로 압축해, 문과 출신의 비전문가도 'SW 개발자'로 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년간 출퇴근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강도 높은 교육을 무료로 받는 데다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교육 지원금까지 주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웬만한 취업보다 SSAFY가 낫다'는 얘기가 나오 정도였다.

◇AI 인재 부족 심각

삼성이 'AI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국내의 AI 인재 양성이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I 분야 부족 인력은 4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자(2721명 부족)가 전체의 63%에 달한다. 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이 서울 강남의 SSAFY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도 이 같은 'SW·AI 인재 부족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삼성은 이번 AI 교육을 4년제 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최근 'AI 전환'을 꾀하는 기업들에 대거 취업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기준 삼성 SSAFY 수료생(9144명) 가운데 취업자는 7727명으로, 8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박순찬 기자



삼성이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 교육생들이 로봇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습. 삼성은 올해부터 AI(인공지능)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삼성청년SW·AI아카데미

대상	혜택	선발	취업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4년제 대학 혹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년간 무상 SW·AI 교육 -인당 1200만원 교육 지원금 제공 -취업 실전 교육, 컨설팅	-연 2000명(1년에 2번 나눠 선발) -서류, SW 적성 진단, 면접 전형	수료생 9144명 중 7727명 취업 ※취업률 85%(작년 말 기준) 자료=삼성전자

기업 AX 바람 타고... AI에듀테크사 뜬다

(AI전환)



직원 AI활용 교육 수요 늘어
팀스파르타·크디랩 등 주목
산업·직무별 맞춤 수업 제공
실무 중심 직무역량 강화 도모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업무혁신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임직원 대상 AI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임직원의 AI 리터러시(문해력)와 실무역량이 성공적인 AX(AI전환)을 이루는 핵심요소기 때문이다. AI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교육 기술) 스타트업도 주목받는다.

24일 벤처·스타트업업계에 따르면 국내 IT(정보기술)교육 관련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기업의 AX와 임직원의 AI역량 강화를 타깃팅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팀스파르타는 직무별 특화 AI교육을 마련했다. 영업직무에서는 고객응대 문서자동화와 매출리포트 작성, 마케팅직무에서는 광고소재 기획과 분석자동화, 전략기획직무에서는 기획서 구성과 시각자료 제작 등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기업 임직원 대상 AI교육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명	교육 내용
팀스파르타	각 기업의 직무별 과제와 조직구조에 맞춘 커리큘럼 마련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직무 등 각 실무분야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엘리스그룹	교육실습 플랫폼 '엘리스스쿨LXP' 활용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육 →AI 에이전트 활용, AI 콘텐츠 생성도구 활용, AI 윤리 등 제공
코드스테이츠	기업 디지털전환 교육 노하우 담은 학습플랫폼 'DT랩' 출시 →전문 연구진이 설계한 역량진단 통해 학습자 수준 확인, 초개인화 교육과정 제시
크디랩	AI기반 서비스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솔루션 '쏘카인드' 운영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얼굴인식 등 AI기술 활용해 서비스 직원의 소통능력 코칭

실무자부터 임원까지 직급과 숙련도에 따라 세분화한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한 해 6000여 명의 기업 실무자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실제 업무적용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산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교육을 확대하고 PoC(개념검증) 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까지 AI교육의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산업·업무별 AI교육 프로그램 풍성
엘리스그룹은 AI교육 실습플랫폼 '엘리스스쿨LXP'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교육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임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챗봇 활용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엘리스그룹 관계자는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해 모금·후원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AI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맞춤형 실습을 통해 비영리부문에서도 AI 활용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AI교육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스테이츠는 기업교육을 위한 학습플랫폼 'DT랩(Lab)'을 출시했다. DT랩은 전문연구진이 설계한 역량진단을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초개인화한 교육과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교육생들이 AI·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코드스테이츠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기업이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DT랩은 교육생이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고 교육을 통해 AI·데이터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했다.

서비스직에 특화된 AI교육 스타트업도 있다. 크디랩은 AI 기반 서비스직 커뮤니케이션 코칭 솔루션 '쏘카인드'(Sokind)를 통해 서비스 직원의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코칭한다. 쏘카인드는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얼굴인식 등 다양한 AI기술을 활용하며 음성뿐만 아니라 표정, 시선, 자세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분석하는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AI역량+로봇기술' 융합형 인재육성까지

IT교육기업 구름은 최근 서울 역삼역 인근에 '구름스퀘어 강남'을 개소하며 교육인프라를 확장했다. 판교와 제주에 이은 세 번째 거점이다. 교육공간에는 최첨단 교육장비를 도입해 몰입감 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이곳에선 K디지털트레이닝, IT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로봇기업 엑스와이지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묶음강좌에 선정되며 재직자 대상 AI·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엑스와이지는 광운대 및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컨소시엄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AID 기반 연구·개발문제 접근과 응용실무'를 주제로 산업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엑스와이지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을 연결하는 실무형 커리큘럼을 확장해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

공사 견적도 인공지능… 롯데건설, AI모델 개발

롯데건설은 공사견적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가를 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공사 견적 모델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I 공사 견적 모델은 건설 표준 내역을 기반으로 공사견적 내역을 일원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견적 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특히 자연어 기반의 ‘매핑(Mapping·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거나 대응시키는 작업)’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복잡한 견

적 코드 없이도 단가를 도출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는 대부분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해 비정형화된 견적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단가를 비교해 왔다.

하지만 이번 모델 개발로 표준 내역과 과거 계약 단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단가 비교 및 검토로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 견적 내역을 DB화함으로써 견적 내역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가 산정 프로세스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델은 향후 실행예산 편성 및 입찰 견적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적용한 이번 모델을 통해 건설업계의 복잡한 원가 내역 체계와 다양한 내역 명칭들을 체계화했다”면서 “표준 내역의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통해 건설 원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국내 최초 '산업 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등장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던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을 없앤 산업 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비전 AI 전문 기업 슈퍼브에이아이(SUPERB AI)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산업 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로'를 공개했다.

회사는 제로를 복잡한 사전 학습 없이도 제조업 품질 검사, 안전 모니터링,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AI 도입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 90만개 데이터와 8개월의 개발 기간만으로 글로벌 1위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했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AI 진입 장벽을 허문다는 목표로 AI 개발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머신러닝운영(MLOps) 솔루션 '슈퍼브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제로를 통해 기업들이 별도의 AI 팀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도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슈퍼브에이아이 '제로' 공개
데이터 수집·사전 학습 없이
명령만으로 원하는 작업 수행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가 국내 최초 산업 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제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차문수 최고기술 책임자(CTO)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로 제로샷 추론 방식을 꼽았다.

제로는 거대언어모델(LLM) 데이터셋 등을 활용해 미리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사물도 즉시 인식할 수 있어 기업의 AI 도입 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나 모델 재학습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제로는 멀티모달 프롬프트 기반의 사용 방식을 통해 텍스트 명령이나 예시 이미지 입력만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멀티태스킹 처리 능력을 통해 단일 모델이 객체 탐지, 분류, 세분화 등 복잡한 비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제로의 이러한 성능이 비전 AI 분야 강국인 중국의 T-Rex2, DINO-X 등의 모델과 비교하며 앞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비전 AI 학회 행사인 '2025 국제컴퓨터비전·패턴인식컨퍼런스(CVPR)'의 챌린지에서 준우승하는 성과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김진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AI는 더 이상 복잡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용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어떤 기업이라도 AI를 도입하고 쓸 수 있도록 제로를 통해 AI의 도입 장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올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내년 말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와이즈넷, 경기도 행정에 AI 이식 업무 처리 체계 통합·효율성 개선

131억원 규모 구축사업 참여 자체 LLM 활용 AI비서 구현

와이즈넷이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131억원 규모로, 엠티데이터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컨소시엄은 엠티데이터(45%)가 주관하고 와이즈넷(15%)과 KT(20%) 등이 참여한다.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정식 서비스 전환이 목표다.

와이즈넷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와이즈 LLM'과 AI 에이전트 솔루션 '와이즈 아이랙(irAG)'을 활용, 행정 업무에 특화된 AI 업무비서를 구현한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화, 예산관리, 회계·계약 지침 등 공공 행정 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AI 업무비서는 멀티 LLM과 멀티 에이전트를 연계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행정 처리 체계를 통합한다. 과업별 최적화된 에이전트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와이즈 LLM은 입찰 과정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대상 벤치마크 테스트(BMT)에서 추론, 상식, 언어 이해력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이즈넷은 이번 사업 이전에도 한국도로공사,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한전KPS, 화성시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은 공공 부문에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는 "경기도 AI 플랫폼 사업을 통해 공공 행정의 실질적인 AI전환(AX)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확산, 국가 AI 생태계 조성 등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국가AI컴퓨팅센터 재시동...과기정통부, 기업 의견 듣는다

통신 3사·네카오에 미팅 요청 공모규격 조정 사전작업 돌입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개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SDS·네이버·카카오 등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주요 기업의 실무진에 각각 미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기존 공모 지침상 문제점과 업계가 원하는 사업 방향 등 기업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 규격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올 2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설명회 이후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100여곳으로, 사업은 처음엔 흥행이 접쳐졌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책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입찰은 무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당시 국가AI컴퓨팅센터 경영 자율성 이슈 등 사업 유찰의 원인을 보고하고 공모지침 등을 개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보고했다.

6월 23일자 2면 참조

기업들은 공공 지분 51% 등 지분을 문제부터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바이백 조항, 사업 지연 또는 취소 시 민간의 손해배상 등 불합리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공공 지분이 과반임에도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민간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독소 조항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포함, 폭넓은 의사 수용으로 정부가 사업을 재정비해서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중 사업 공모 규격을 변경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韓, 세계적 수준 AI 개발 가능” ‘AI 전문가’ 배경훈의 자신감

인프라·데이터만 보완하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할것
기초과학·AI 융합에도 주력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만 보완하면 우리도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국내 유일의 추론형 AI 모델 ‘엑사원 딥’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한국도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G AI연구원의 또 다른 모델인 ‘엑사원 3.5’는 스탠퍼드대 AI 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AI 모델 중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AI’로 등재돼 관심을 모았다. 배 후보자는 “2025년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 한국 모델이 이름을 올린 것처럼, 올해 더 많은 국내 AI 모델이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실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직접 뛰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는 AI의 산업 전반 보급에 집중할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1차적으로는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모든 국민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기초과학과 AI의 융합”이라며 “바이오와 제조산업의 혁신을 위해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식 기자

'챗GPT의 95%' 기술론 경쟁력 없어 ... 유연한 '소버린 AI' 전략 짜야

② 확장형 '소버린 AI' 로드맵 만들어라

지난 4월 네이버와 KT 간 '소버린 AI(인공지능)' 논쟁이 불었다.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외산을 들여와 우리 상표를 붙였다고 소버린이라고 칭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KT를 저격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소버린 AI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기술 원산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AI 전문가들은 두 기업 간 신경전을 두고 소버린 AI 개발과 관련해 방법론에서 얼마나 의견이 갈리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소버린 AI는 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국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를 총칭한다. 하지만 '독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규모언어모델(LLM)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AI 구동을 위한 컴퓨팅 자원인 클라우드 등을 모두 갖춘 소버린 AI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진다. 기술 독립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한국을 'AI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대표 LLM 만든다는데-

"빅테크 성능의 95% 수준인 국가 AI 모델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목표가 공개된 후 한 AI 솔루션 스타트업 C 레벨이 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대비 95% 수준 성능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는 "지금 빅테크들은 0.1%의 성능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101%라면 모를까, 95%를 목표로 삼아 한국형 LLM을 개발하는 건 돈 낭비"라고 꼬집었다. 하정우 신임 AI미래기획 수석도 대통령실에 선임되기 전 소버린 AI의 성능 목표를 '챗GPT 등의 9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LLM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버린 AI라고 부를 수 있는 국내 토종 모델

은 14개로 6곳의 기업이 만들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등이다. 모델 수도 주요국(미국 128개, 중국 95개)에 비해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은 모델도 현재까지 없다. 앤드리스호로위츠(a16z)가 발표한 'AI 서비스 톱 50' 중 한국 모델 기반 AI 서비스는 0건이다.

소버린 AI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민간 기술에 정부 지원을 얹어 해외 빅테크에 휘둘리지 않는 토종 AI 모델을 자체 확보해야 한다고

한국형 AI모델 개발한다는데 ...

정부 '독자 AI' 목표 내걸었지만 빅테크 수준 이하 기술 의미 없어 업계 "101% 성능 갖춰야 경쟁력"

'소버린 AI' 놓고 의견 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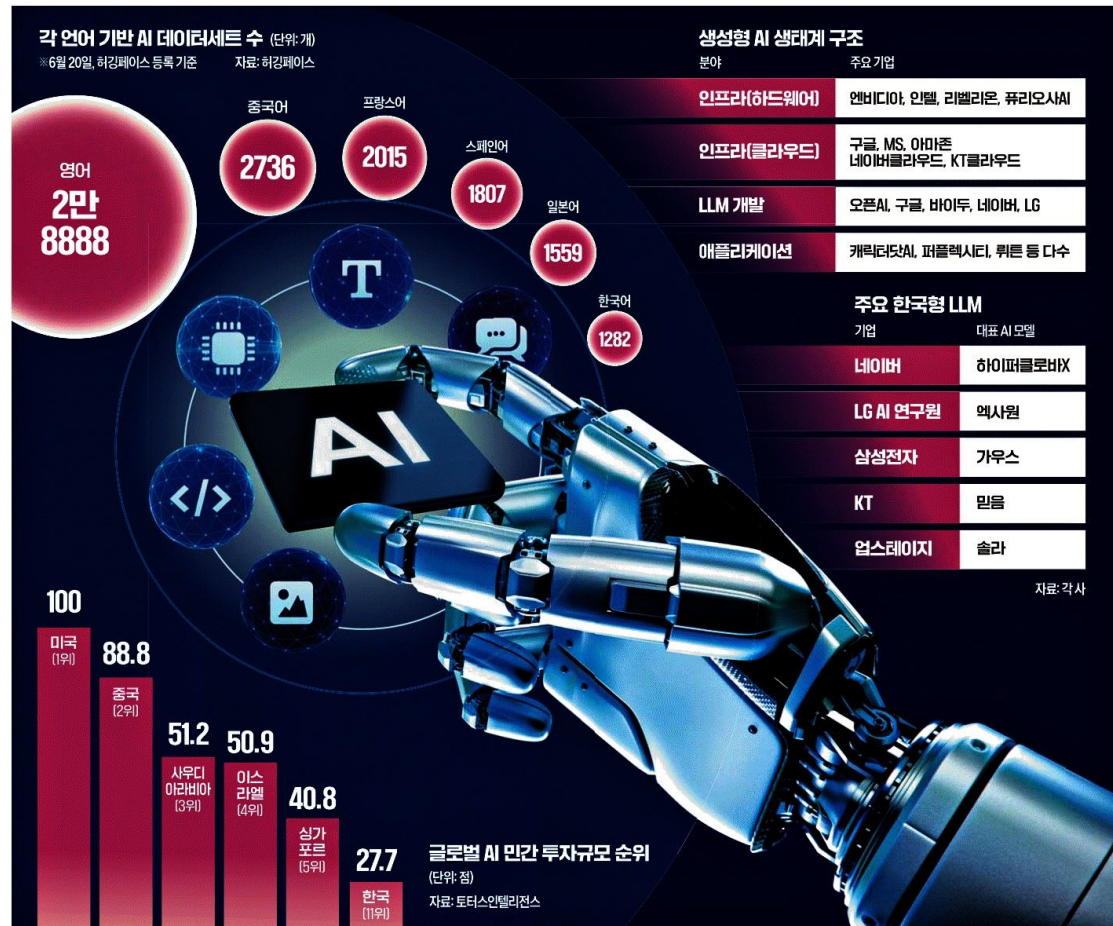
"외국기술 택일이만으로는 한계" "토종만 외치다 갈라파고스 전략"

빅테크 기술 융합해 새 모델로

일정 영역 해외 기술에 문호 열고 LLM·서비스모델 함께 개발해야 AI 응용분야 비교우위 전략 필요

본다. 하 수석이 평소에 언급해온 이른바 '육수론'이다. 모든 식량(기업)이 다 육수(파운데이션 모델)를 팔아야 하는 이유지만 국가가 좋은 육수를 만들어 각 식당이 특색 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게 공급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다. 외부 육수나 공급이 끊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국방과 기업 기밀 등 보안이 민감한 분야에 해외 모델을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얘기는 '베트남 쌀 생산이 많은데 쌀 농사를 짓지 않아 사 먹으면 되자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버린 AI가 미래 수출 전략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AI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해 외부에서 AI 파트너를 찾는 국가들이 대상이다. 네이버가 자체 LLM 기술을 기반으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과 협력해 해당 국가들의 소버린 AI를 구축하고 있는 게 대표적 예다. ◆'유연한 소버린 전략 짜야' 소버린 AI 구축에 얼마만큼의 예산과 노력을 쏟을 것인가를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높은 모델 성능을 요구할수록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고 기

업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 LLM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챗GPT 등 글로벌 모델이 표준이 된 상황에서 K모델을 쓰다간 생태계에서 배제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는 "K-GPT를 공공 배달 앱 하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과거에도 정부는 각 분야 기업을 연결해 K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한 테크업계 관

계자는 "정부는 늘 특정 공간에 기업들을 모아놓고 무조건 국산 소스만 연결하려는데 기업들은 자율성을 잃고 최종 제품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소버린 AI 전략만 고집하다 보면 일부 대기업에만 지원이 쏠릴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LLM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 몇 곳 없어서다. 글로벌 빅테크 기술을 유연하게 섞어 새로운 '한국형 AI'를 개발하는 것 역시 소버린 AI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정 영역에선 해외 기술에 문호를 열고 LLM 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 서

비스 개발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도. 홍유석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갑자기 세계 최고 LLM을 이기겠다는 것보다 특정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신경 쓰는 게 맞다"며 "AI 응용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물론 원천기술에도 접근해야 하지만 그 위에 독자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상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독창적인 AI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최영훈 기자

년 AI 하나만 쓰니? 내 뒤편 'AI 드림팀' 있다

올해 AI 업계 달구는 'MCP의 마술'



그래픽=주이안



경제 +

“그동안 받은 이메일 내용을 참고해 고객에게 보낼 초청장을 영어로 써줘.” 그동안 인공지능(AI)에 이런 복합적 요청을 했을 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AI가 요약부터 글쓰기, 번역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MCP(Model Context Protocol)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AI들이 서로 소통해 업무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물의 질도 좋아진다. 이런 협업이 가능해진 건 MCP가 그동안 AI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썼던 문제를 해결해서다. MCP는 AI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공통 언어’ 역할을 한다. 올 초부터 AI 업계 가장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다. 비단 개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변화는 아니다. 필요한 기능마다 찾고, 설치하고, 열어서 실행해야 하는 현재의 앱 생태계도 변화할 수 있다. MCP로 AI는 ‘올인원 비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권유진·김남영 기자 kwon.yujin@joongang.co.kr

MCP는 AI가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통된 연결 방식이다. 기존엔 AI가 입력받은 정보 안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지만, MCP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외부 도구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치 AI에 ‘손과 발’을 달아준 셈이다. 과거 각 전자 기기마다 다른 충전 케이블을 써야 했던 불편함이 ‘USB-C’ 타입 등장 이후 해결된 것처럼, AI들도 MCP라는 표준으로 자유롭게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게 됐다.

AI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MCP가 IT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빅테크 기업들이다. 시작은 클라우드를 만든 엔소픽.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MCP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뒤 주요 기업들의 도입이 본격화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윈도, 오피스, 깃허브, 애저, 코파일럿 등 거의 모든 제품에 MCP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구글도 자사 AI인 제미니에 MCP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A2A(Agent-to-Agent) 프로토콜까지 추가로 내놔다. A2A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 에이전트끼리 직접 거래하는 구조를 말한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MCP를 공식 지원한다.

기업들이 MCP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AI 경쟁의 초점이 모델 성능 개선에서 생태계 연결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모델 자체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외부 도구와 연결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MCP를 지원하지 않는 AI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고립된 섬처럼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반면 MCP 생태계에 참여한 AI는 수많은 외부 서비스

와 연동해 사실상 무한대의 기능 확장이 가능하다. MCP가 AI 업계를 ‘단독 플레이어’에서 ‘생태계 게임’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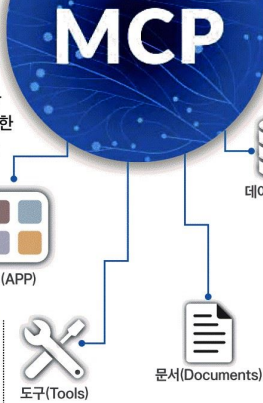
이 같은 기술적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MCP 기반의 ‘에이전트 경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서다. AI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스스로 골라 쓰게 되면서, 그 도구를 만든 회사들은 사용량만큼 돈을 받는 구조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AI 도구들을 모아놓은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에이피파이(Apify)는 사용자 환경(UI) 디자인 제작, 실시간 뉴스 분석 등 다양한 AI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차례 에이피파이 공동창업자는 지난 3월(현지 시간) AI 엔지니어 월드 페어 행사에서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자들에게 정산한다. 한 달에 약 25만 달러(약 3억원) 이상을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앱을 찾아서 실행하는 대신, “스포티파이에서 음악 틀어줘”라고 말하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앱을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앱을 골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굳이 앱을 미리 설치해둘 필요가 없어진다. MCP가 AI 에이전트와 외부 앱 간 연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지난해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에서 “미래 인터넷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의사 결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개방형 에이전트 웹으로 진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마케팅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열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피그마(웹 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디자인 툴)를 켜고, 반응을 살펴보면 여러 웹사이트를 뒤져야 했다. 브라우저 탭을 수십 개씩 띄워놓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MCP 환경에서는 여기저기 사이트를 헤매 필요가 없어진다. “어제 캠페인 전환율 어땠지?”라고 물으면 AI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새 버너 만들어줘”라고 하면 피그마로 디자인을 제작해준다. “반응은 어때?”라고 물으면 웹에서 피드백을 수집해 긍정·부정까지 분류해서 보여줄 수 있다. 더 이상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며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MCP 기반의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MCP가 도구를 하나씩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문서를 요약하고, 번역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연결해야 하는데 당장 이런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보안 문제도 만만치 않다. AI들끼리 자주 접촉하다 보면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 분야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MCP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혁신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팩폴’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1 USB-C타입식 AI 표준 나와 AI끼리 쉽게 협업 가능해져
- 2 말만 하면 AI가 팀으로 도와 일일이 앱 갈 필요 없어져
- 3 빅테크 앞장서 MCP 도입 산업 생태계 대격변 예고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단위: 달러

2030년(예상)
503억

예상 연평균 성장률(CAGR)
약 45%

자료: 그랜드뷰리서치

2024년
54억

크다. 결제 기능을 붙이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소비자가 정말 편리함을 느껴려면 장비부터 답기부터 결제, 배송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AI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김영무 카카오벤처스 심사역은 “MCP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결제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AI가 결제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MCP로 인한 환경 변화를 양방의 검토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이라도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 받는 앱을 만들어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현재와 달리, MCP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최종 결과만 경험하게 되면 ‘AI에 호출되는 부품’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어서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오늘의 집’ ‘무신사’ 같은 브랜드를 직접 기억하지만, 미래에 하나의 거대한 쇼핑 에이전트가 탄생하고 그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주는 구조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없다.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핵심 기능만 잘 구현한 에이전트 하나만 갖고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다. AI 스타트업 디노티사의 한병전 상무는 “MCP 기반의 표준화된 에이전트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AI 기술력이 없는 스타트업도 본인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AI 박찬 ‘챗GPT의 어머니’ 홀로서기 출발은 기업 맞춤형 AI

미라 무라티(사진) 전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싱킹머신랩(TML)’이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드러냈다.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AI로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현지 시간) 디인포메이션은 TML 투자자들을 인용해 “무라티가 이끄는 TML이 강화 학습을 통해 특정 비즈니스 지표에 맞춰 모델을 맞춤 설정할 계획”이라며 “무라티가 사업 모델을 ‘기업을 위한 강화 학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 챗GPT가 일반 소비자 시장을 선제 공략한 후 B2B로 확장 중인 반면 TML은 시작부터 기업 시장을 겨냥하는 구도다.

무라티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사태 당시 임시 CEO를 맡았던 인물로 ‘챗GPT의 어머니’로도 불린다. 오픈AI 2인자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9월 퇴사한 후 TML을 설립했다. TML의 사업 전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최근 이뤄진 시드 투자 덕이다. 시드 단계는 시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받는 최초 투자를 일컫는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TML이 최근 100억 달러 기업가치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드 투자로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TML이 구글·메타·아마존 등 오픈AI 경쟁사와 협력을 꾀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TML은 구글 클라우드상에서 AI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무라티와 만나 클라우드 제공을 논의했다고 한다. 또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메타 ‘라마’ 시리즈와 공조가 기대된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TML 설립한 무라티
시작부터 B2B 공략
시드투자 20억 달러
실리콘밸리 최대규모



드론·군용XR·로봇... AI가 뒤흔든 전쟁 지형

우크라, 미 팔란티어 AI기술 도입 후
드론 공격 성공률 50%~80% 향상
저커버그, 군사용 XR기기 개발 중

인공지능(AI)이 전쟁 지형도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AI 자폭 드론이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사살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AI 무기 체계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AI를 탑재한 무기 체계의 활용 범위가 확장하면서 전쟁 양상도 180도 변화하는 것이다.

24일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최근 조종수 없이 드론만으로 이뤄진 타격 팀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AI를 탑재한 신형 드론이 일정 거리에서 조종수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 성공률을 50% 미만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팔란티어의 AI 기술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팔란티어의 AI가 내장된 ‘세이커(SAKER)’ 정찰 드론은 10km 범위에서 군인과 탱크, 차 등을 식별하고 언제 어떤 무기로 공격할지 자체 선택할 수 있다.

자폭 드론의 성능도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드론이 자율 비행,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 스타트업 안 듀릴이 개발한 자폭 드론 ‘알티우스 600M’을 제공받아 실전에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차세대 모델은 장시간 동

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표적을 찾아낸 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기술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의 방산 분야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지난해 12월 안두릴과 협업해 미군의 드론 방어 시스템에 AI 기술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두릴은 “무인 드론과 기타 항공 장비의 공격으로부터 미군과 동맹군을 보호하는 국가 방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치명적인 공중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군사용 확장 현실(XR) 기기를 개발 중이다. ‘이글아이’란 이름의 장비에는 병사들의 청각과 시각 능력을 향상하는 센서가 탑재된다. XR 기기를 착용하면 수km 밖에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군인이 훈련 드론을 띄우는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핵심 전술로 부상했다. AP통신

날아오는 드론을 탐지하거나 숨겨진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메타는 지난 10년 동안 미래의 컴퓨팅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AI와 AR을 구축해 왔다”며 “국내 외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군 장병들에게 이런 기술을 제공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中 AI 확산...韓 독자 생태계 시급

**알리바바 '큐원' 오픈소스 모델
4000만 다운로드·9만개 파생
메타 '라마' 제치고 존재감 커져
"소버린AI 설계 전략 재설정"**

중국 알리바바클라우드가 개발한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 '큐원'이 글로벌 생태계에서 빠르게 확산, 국내 AI 산업에도 위기의식을 불러들이고 있다.

큐원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라마'와 중국 딥시크 'R1' 모델을 제치고 세계 거대언어모델(LLM)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4일 글로벌 AI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큐원 시리즈는 2023년 첫 공개 이후 누적 40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파생 모델 수만 9만개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라마 시리즈의 파생 모델 수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큐원의 최신 모델 'Qwen3-8B'는 최근 1개월 동안 다운로드 수 약 150만회를 기록하며 메타 'LLaMA-3.1-8B'의 약 88만회를 크게 앞섰다. 딥시크의 'R1' 시리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최신 모델인 'DeepSeek-R1-0528'은 월간 다운로드 수 약 15만회로 나타났다. 단일 모델 기준으로도 큐원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모델임을 보여 준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큐원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어 처리 능력과 온프레미스(구축형) 버전에서 최적화가 가능해 산업별 맞춤형으로 튜닝을 거쳐 기업 차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간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금융에서도 온프레미스로 튜닝해 개발하거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다양하게 튜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에 이어 큐원까지 중국 AI가 국내 산업 기반을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더라도 기존 기술 장벽과 가격 등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 종속 문제도 제기된다.

한 AI 기업 대표는 "중국은 세계 제조업 시장을 잠식한 '싸고, 빠르게, 많이' 전략을 AI 시장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고효율·저비용 전략을 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중국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AI

논문이나 기술·생태계 기여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전략에도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AI 성능 경쟁을 넘어 라이선스 설계와 커뮤니티 지원, 튜닝과 최적화 등 시장 확산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술 추격에만 초점을 맞추면 추격자나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임희석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큐원은 라마보다 한국어 성능과 벤치마크 결과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튜닝을 거쳤을 때 성능 차이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사례에서도 큐원 활용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국은 큐원을 사실상 '월드베스트LLM'(WBL) 수준의 소버린 AI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큐원 같은 독자 모델을 만들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AI 전쟁은 곧 '인재 경쟁'

중동 지역에 전원이 감도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AI 전쟁'이다.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대표되는 이 전쟁은 최근 AI 인재를 둘러싼 경쟁전으로 변지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 액수의 보너스 제안도, 빅테크 거물의 직접적인 러브콜도 불사한다.

메타, 저커버그도 직접 스카우트 나서

최근 메타의 행보는 뜨거워진 인재 쟁탈전을 가장 잘 보여준다. 메타는 이달 중순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고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왕 CEO는 19세에 회사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인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로 꼽힌다. 왕 CEO는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구성한 '조지능'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 현재에선 스케일 AI에 대한 메타의 투자가 사실상 왕 CEO를

메타, 스케일 AI에 19조 투자하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 연구팀 영입 빅테크, 파격적 연봉 걸며 쟁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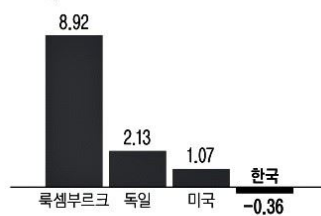
국내 업체도 '합격 상금' 걸었지만 한국, 여전히 저임금에 투자 부족 AI 인재 유출 폭 매년 더 커지기만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진 메타가 이를 뒤집을 한 방으로 인재 영입을 택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저커버그 CEO로부터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AI 연구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메타의 제안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조차 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최소 1000만달러(약 135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신 경쟁도 벌어졌다. 챗GPT 운영사 오픈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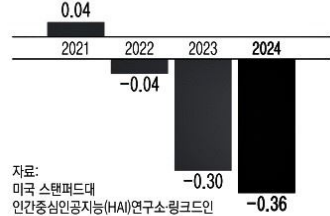
주요국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
단위: 명, ※2024년 기준



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오픈 AI 직원들을 대거 빼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최고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메타가 오픈 AI 핵심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제안한 보너스 액수는 최대 1억달러, 약 1370억원에 달한다. 실제 메타는 오픈 AI의 수석연구원 노엄 브라운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오픈 AI 합류 당시에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업계 거물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인재를 뺏고 빼앗기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인력 3

한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추이
단위: 명



명을 영입했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구글의 핵심 AI 연구자 우용후이 박사를 데려갔다.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 중인 중국까지 가세해 거액의 급료로 실리콘밸리 연구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구글 딥마인드는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MS, 아마존 등에서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AI 전쟁이 인재 전쟁으로 변질 이유는 그만큼 소수의 천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 딥시크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능한 최고급 AI 인재를 수천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합격만 해도 2000만원 준다는데...

AI 인재 모시기에 뛰어들었다는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 토스는 지난달 서버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면서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100만원을 주는 톤콘 이벤트를 열었다.

AI 서비스 플랫폼 '위튼'의 위튼테크놀로지스는 한술 더 떴다. 지난 4월 AI 개발 등 17개 분야 채용을 시작하면서 채용 합격 보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위튼 관계자)가 반영됐다.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한 '이노코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닥(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채용해 피지컬 AI, AI 모델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채용된 연구원에겐 국내 포닥 평균의 1.8배인

연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AI 인재를 물리기보다 빠져나가는 곳이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인구 1만명당 AI 분야인재순유출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란 점이다. 2022년 조사에선 0.04명, 2023년에는 0.3명이었다.

업계에선 실리콘밸리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임금, AI 분야 투자 부족 등이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개인의 성장 등 어떤 면에서도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자체가 스케일 싸움인데 한국의 AI 생태계는 일단 상대가 안 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십 만개씩 묶어서 활용해보는 경험 자체가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며 "AI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고 병역 문제가 아니라면 젊은 인력을 잡아둘 방법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중양선 침범·속도 위반 머스크 로보택시 ‘아찔’

시험 운행 첫날 ‘불안한 출발’
美당국 테슬라 추가정보 수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야심 차게 내놓은 ‘로보택시’가 시험 운행 첫날부터 중양선을 침범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가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한된 구역에서 약 10대의 모델Y 차량으로 인플루언서에게 로보택시 시험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과속, 금지 차선 진입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톱 모리가 올린 영상에서는 로보택시 차량이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다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중양선을 넘고 경적을 울리다가 겨우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주변에 차량이 없어 충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용자인 소여 메릿은 차량이 시속 30마일(48km) 속도제한 표지판을 통과한 직후 시속 35마일(56km)에 도달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12만 3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허버트 웡도 시속 35마일(56km) 제한 구역에서 차량이 더 빨리 달렸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22일(현지 시간) 테슬라 로보택시가 중양선을 침범하고 있다.

버 비어드 테슬라 가이든 탑승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기 위해 로보택시를 도로변에 세우게 하는 명령 버튼을 눌렀는데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추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로보택시는 탑승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조종 직원과 통화한 뒤에도 정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다수의 영상이 올라오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앞서 머스크는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로보택시 출시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운행 과정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일어난 셈이다. 한편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미국 시장을 독점하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 중국의 바이두 등과 경쟁하게 된다. 윤경환 기자

中알리바바, 로보택시 시장 진출 ‘속도’

헬로바이크, 엔트·CATL과 합작

알리바바그룹이 로보택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며 중국자율주행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자전거 공유 플랫폼 헬로바이크는 알리바바 산하의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에 대한 3개 회사의 초기 투자금은 30억 위안(약 5712억 원)을 웃돈다. 헬로바이크는 로

보택시 사업을 위한 핵심 R&D 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모델과 자율주행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에 참여한 엔트그룹은 금융 서비스 기반 AI 기술과 보안·프라이버시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이다. CATL도 합작법인을 통해 배터리, 차체, 자율주행 모듈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알리바바그룹은 앞서 지난해 말 상하이 자동차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IM모터스가 도로에서 레벨4급 자율주행이 가능한 테스트 면허를 획득하는 등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아마존·MS에 점령당한 AI 전용 인프라 K클라우드는 기술·인력 턱없이 부족

정부가 '소버린 인공지능(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클라우드 인프라는 외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능 연산을 뒷받침할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만 해도 화웨이 등 빅테크들이 AI 독립을 위해 클라우드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60.2%로 압도적 1위였고,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24.0%), 구글 클라우드(GCP·19.9%) 순이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20.5%로 구글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KT(8.2%), NHN(7.0%), 삼성 SDS(1.2%) 등 다른 국내 사업자는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에 그쳤다.

정부가 강조하는 'K클라우드'는 AI 연산을 감당할 체급조차 못 갖춘 상태다. 초거대 AI 모델은 수천 개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동시에 작업을 나눠 처리할 수 있는 연산 환경이 필

전 세계 AI 특화 데이터센터 분포 (단위: 개)



※2024년 기준

자료: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OII)

국내기업 이용률 AWS 60%인데
네이버 20%·KT 8% 수준 그쳐
AI데이터센터 美 26개 vs 韓 4개

요하다. 여기에 데이터를 지체 없이 주고받는 고속 네트워크와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스토리지도 필수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이런 AI 전용 인프라를 한꺼번에 갖춘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가 뒤늦게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선도국과의 격차는 이미

돌이키기 힘들 만큼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OI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AI 데이터센터는 미국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개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기타 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36개였다. 반면 한국은 고작 4개에 불과해 아시아 내에서도 싱가포르(6개)와 인도(5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령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에 따르면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설계·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SK, 삼성,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 일부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초거대 AI에 필요한 GPU 클러스터는 수천 개 GPU가 병목 없이 병렬 연산을 수행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단순 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함께 구축돼야만 AI 주권 확보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I G3 도약 위해선 국내 소버린 클라우드 산업 지원 확대해야”

오늘의 DT인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클라우드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사이버보안 등 디지털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기반 인프라다. 독립적인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네트워크, 미래 제조업까지 연결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가 24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최지웅(사진) 회장(KT클라우드 대표)은 ‘소버린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부처 간 엇박자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만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클라우드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AI 3대강국(G3) 도약’뿐 아니라 ‘공공 클라우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적극 추진’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기존의 단순 클라우드 이전을 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슬라이싱 등을 통한 효율적인 AI인프라 자원 배분을 위해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오픈AI와 딥시크 등은 이미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데이터·AI 주권 확보를 위해 소버린AI 구현에도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의 인프라·플랫폼이 적극 활용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글로벌 CSP가 국내 리전으로 데이터 레지던시는 충족할 수 있으나,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은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짚었다.

정부 일각에서 국내 클라우드 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가 선택지로 우선시돼왔다. 하지만 민간 IT인프라를 도입해 운영한다 해도 정부 시설을 임대해 쓰는 것이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현에는 제한적인 모델이다.

최 회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필요성뿐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수년 내 포화될 것까지 고려해 미리 전력망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AI인프라 자원 효율적 배분
공공 클라우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 필요
제도적 불확실성·AI분야 전문인력 부족 업계 발목**

스에 제기하곤 하는 보안성 부족 주장에 대해선 “이미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금융 분야에서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가 쓰이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울러, “AI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위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여러 제약과 규제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는

바라본다. AI산업 발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미국 정부가 취하는 방식인 정부 클라우드 센터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정부 보안 요건 등에 따른 전용 데이터센터를 짓게 하고 공공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맡기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클라우드에 대해 장기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정부 클라우드 센터의 경우 각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드를 포함한 IT서비스 분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수준협약(SLA)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선 긍정적이나 서비스 유형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다”며 “특히 중소·중견 CSP 입장에서 과도한 가용률 요건이나 이중 SLA 요구는 현실적인 사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산업이 직면한 당면한 과제로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공공조달절차, 보안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첫손에 꼽았다. 글로벌 사업자 중심의 점유율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국산 CSP들이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클라우드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정부 들어 줄어든 클라우드 예산이 AI 정책 영향까지 받을까와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소버린AI를 중심으로 AI



G3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될 소버린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 클라우드 전환 관련해 거버넌스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지도자의 의지와도 맞닿아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전환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현기자 dhp@dt.co.kr

아세안 데이터센터 붐... '아시아 AI-데이터 공동체' 구상 펼쳐야

고영경의
아세안 위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



지난 20일 국내 최대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출범식이 열렸다. SK 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공동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100MW 규모로 시작해 1GW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를 “최고의 AI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첨단산업이 가능하다는 모범 사례”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힌다. 이제 ‘AI 고속도로’가 울산을 넘어 아세안과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년 누적 투자액이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연간 매출은 이미 102억 달러(2023년 기준)에 달하며, 투자 규모는 연평균 14.2% 성장해 2030년에는 30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11.2%)을 상회하는 수치다.

싱가포르가 본래 아세안 데이터센터 허브였지만, 토지·에너지 제약으로 신규 건설이 중단되며 투자가 인근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60여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AWS,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에 약 230억 달러, AI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약 3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인접한 조호르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며 동남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국도 AWS의 110억 달러 투자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다.

흥미로운 대상은 태국 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인 대만의 텔타일렉트로닉스다. 삼성전자보다 작지만 전력공급장치와 냉각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앞세워 태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고, 2024년 매출의 30%를 데이터센터에서 창출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기업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중국 AI 기업 허브로 부상

한국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전력 제한, 주민 반발 등으로 데이터센터의 신규 투자가 어려운 구조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에너지, 유연한 규제, 마·중 갈등 회피 경로로서의 매력을 바탕으로 중국 AI 기업의 허브로 급부상 중이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수천 개의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를 이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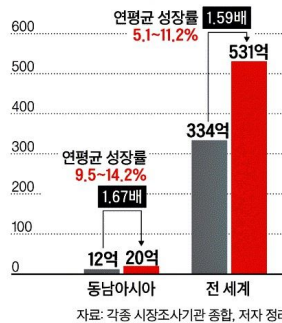
이처럼 아세안의 데이터센터 붐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데이터 주권 정책, 지정학적 중립성이라는 3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다. 하지만 인재 부족과 에너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예컨대 AI 이미지 한장을 생성하는 데 냉장고 30분 가동 분량의 전력 이 소모되며, 아세안 국가의 전력은 여전히 절반가량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연 1900억 달러 규모의 재생

저렴한 에너지와 유연한 규제로 동남아 데이터센터 시장 급성장 한국, 핵심 기술 공급자 될 수도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 전망

단위: 달러 ● 2024년 ● 2030년
※시장 규모(연간 매출) 기준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과감한 AI 정책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기술 협력의 중심으로 나아가 기회다. 민간 전문가를 청와대 AI 수석으로 발탁한 것 역시 변화의 신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접근법은 ‘강대국 줄서기’를 지양하는 아세안의 전략적 유연성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의 인재 부족과 에너지 전환, 기술 표준 부재는 오히려 한국에 기회다. 스마트그리드와 고효율 전력 장비,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에서 한국은 데이터센터 핵심 기술 공급자 자리 잡을 수 있다.

실제 한국 기업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신재생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의 텔타일렉트로닉스처럼 기술과 정책, 시장을 정교하게 연결한 성공 사례를 만들려면 기업 단위를 넘어선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AI 클러스터 형성 가능

한국과 아세안의 ‘AI-데이터 공동체’ 구상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나 투자 위치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자는 접근이다. 한국의 반도체·전력 효율화 기술과 아세안의 데이터 수요·재생에너지 역량이 결합한다면, 마·중 양극 체제 바깥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다거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를 통해 그런 전환을 주도했듯, 한국도 기술·디지털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아세안을 넘어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도 적용 가능한 ‘한국형 디지털 협력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빠른 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만들어갈 ‘AI-데이터 공동체’는 그 미래를 향한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아세안 데이터센터 현황

※2024~2025년 기준



국가	투자 규모 (추정, 달러)	주요 투자 기업 및 기관	데이터센터 용량(MW) 및 전망	특징
싱가포르	약 120억	AWS, 구글, OpenAI, Equinix, Singtel, STT GDC (현지기업)	약 1400MW, 신규 건설은 제한적	•아세안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고성능 AI·클라우드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
말레이시아	233억	구글, AWS, 오리클, GDS IDC 등 YTL Power (현지기업)	약 1200MW (2024년), 2028년 3200MW 예상	•정부정책으로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집중 육성 •글로벌·중국계 투자 활발
태국	110억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ata Corp, True Internet, CSL (현지기업)	약 600MW, 지속적 성장 중	•안정적 전력망·5G 인프라 우수 •낮은 건설·운영 비용
인도네시아	약 20억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PT DCI, Biznet (현지기업)	약 500MW (2024년), 2028년 1500MW 예상	•신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연계 투자 증가
베트남	약 15억 (2026년 전망)	마이크로소프트, Viettel, CMC (현지기업)	약 200MW, 빠른 성장 예상	•정부 데이터법 시행 예정 •클라우드·AI 인프라 집중 투자

자료: 전자 정리

“양자컴 5년내 급속 진화… AI와 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퀀텀코리아’ 개막
미·EU 등 8개국 300여명 참석
“오류 줄이고 장밋빛 미래 열 것”

양자컴퓨터 실용화의 관건인 양자 오류정정기술이 앞으로 5년 이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해 양자 오류정정 기술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는 양자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한 ‘퀀텀 코리아 2025’에서 오스카 페인터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 교수는 기초강연을 통해 양자기술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퀀텀 코리아 2025는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는 유럽 연합,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 양자 분야 산학연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자소자·양자정보 하드웨어 분야 권위자이자 현재 아마존웹서비스(AWS) 퀀텀 하드웨어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오스카 페인터 칼텍 교수는 첫 기초강연에서 “큐비트 오류율이 15년 전



유상임 (앞줄 왼쪽 여섯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컴퓨팅 분야 전문가들이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퀀텀 코리아 2025’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6일까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만 해도 10%에 달했지만, 현재는 0.1%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300번 정도 하면 1번 오류가 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원자 수준에서 결함이 없는 소재를 만들고 제어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오류를 앞으로 더욱 줄이고 양자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인터 교수는 “AI와 융합으로 양자컴퓨터의 양자 오류정정 기술을 개선해 나간다면 양자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QED-C) 실리아 메르츠바허 대표는 “연구에서 현실로-부상하는 양

자경제’ 주제의 기초강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양자분야 인재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 활용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사 기간 동안 국제 콘퍼런스, 연구 산업 전시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자컴퓨팅 세션을 시작으로 3일 동안 글로벌 양자기술 트렌드와 그 진화, 국가별 양자산업 생태계 현황, 글로벌 양자밸리 클러스터 조성 현황 등 총 4개 분야, 8개 전문 세션이 열린다.

또한 올해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

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프랑스판텔라, 미국 IBM, 아이온큐, 큐에라 등 8개국 57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연구·산업 전시회가 열려 최신 연구성과와 제품 전시, 기술 설명회를 갖는다. 행사마지막날(26일)에는 양자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대중강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기술은 실험실을 넘어 현실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특히 AI와 결합한 퀀텀은 헬스케어, 기후위기, 경제 등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인류 번영의 장밋빛 미래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주도권 놓칠라... 8개銀, 원화 코인 합작법인 만든다

컨소시엄 구성해 코인발행 검토
非은행 발행 허용두고 갑론을박

국내 8개 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기능을 서서히 파고드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대응 상황 자료를 회원은

행들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수협 m뱅크 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작법인 공동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8개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한 합작법인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위한 준비자산은 은행에 예치·신탁하는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금융권에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자본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비은행 회사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독이 가능한 은행에만 발행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익진 기자

자본금 10억만 있으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한다는 與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50억
기존 제도와 형평성 문제 불거져
부도난 해피머니 자본금도 25억
“허들 지나치게 낮췄다” 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발행자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는 별도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의 자본금 요건은 민 의원 법안에서 규정한 것(5억원)보다 두 배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자기자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부도난 해피머니상품권 발행 기업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본금은 25억원이었다.

기존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도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금융거래

법상 전자금융업의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선불충전업 등은 20억원이다. 단순 예치나 수수 같은 최소한의 전자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3억~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발행 이후 예치금이 몰릴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전자금융업 수준의 자본금 기준을 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통제, 회계 감시,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본 요건과 소비자 보호 장치 등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CBDC사업 비용부담 두고 은행권 불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범위 확대로 재정 증대” 지적
상용계획 포함 장기 로드맵 수립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조율’ 강조
한은 “은행 우선 발행” 주장에 맞서**

한국은행이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추진해온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테스트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간 송금까지 테스트 범위 확대가 확대되면서 추가 비용 집행 등이 불가피해져 재원 부담이 가중됐다는 은행권의 지적이다. 한은은 회의체를 통해 이슈 해소를 꾀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4일 은행연합회의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 “1차 테스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후속 테스트 진행은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3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고자료 성격으로 배포됐다. 은행연은 한국은행 주관 실무자회의, 한국은행-연합회 회의 등을 통해 은행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급 등으로 확대되면서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DC 관련 사업에 3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대세에 역행하기보다는 기존 환전,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예정된 것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하는 돈”이라면서도 “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CBDC 사업과 관련된 은행권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내부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은은 컨설팅을 거쳐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범위 확대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강 프로젝트 관

련 비용에 대해서는 한은의 부담이 훨씬 크고, 은행들과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인 입장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존 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협업해 외환업무 관련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증권가 전산장애 계속… “재발방지 쉽지 않네”

대응책 담은 ‘CEO레터’ 발송에도
성과는 미미… 투자자 불편 여전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장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에서 이달 또다시 매매 지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전산 오류와 시스템 마비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투자자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오후 5시 41분경 애프터마켓(시간외거래)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등 거래 시스템에서 매매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거래 지연 사고로 일부 고객이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해 키움증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이번 거래 지연 사고 이유에 대해 “이중화된 서버에서 순간 단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3~4일 양일간 ‘먹통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대형 이벤트가 겹치면서 주문량이 폭증했고 이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사고 직후 주말인 5~6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중단

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종목은 3시간 가까이 거래가 되지 않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국내 또는 해외 주식거래에서 전산장애 및 주문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국내 증권사에 전산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이 담긴 ‘CEO 레터’를 발송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전산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여러 증권사

에서 서버 용량 증설,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운용비 증액, IT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통제 가능한 영역 내에서 전산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 대비로 만전을 기할 수 있겠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빠른 사후 조치가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발발한 해외 주식 브로커 오류나 행정망 오류에 해당하는 ‘외부 요인’의 경우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식 브로커를 다중으로 확대해 한 브로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다른 경로로 주문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jy1008@

금융권 해킹 정보유출, 작년 5명→올해 3142명

北해커, 서버에 암호 걸고 돈 요구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안다리엘’은 올해 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문서중앙화 서버를 해킹한 뒤 암호를 걸고 “돈을 주면 암호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데이터 백업과 일이 있어 돈 요구에 응하진 않았지만 해당 서버를 버려야 했다.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난해 5명에서 올해는 6월 기준 314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는 지난해 4건, 올해도 6월까지 4건이지만 새어 나간 개인정보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올해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iM뱅크 △노무라금융투자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었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따져 보면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저축은행(3만6974명) △증권업권(1만883명) △생명보험업권(2673명) △은행업권(474명) 순이다.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없는 자산운용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을 포함하면 관련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위협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는 정보보안 관련 금융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금융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이사회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LG, 다음달 AI모델 ‘엑사원 4.0’ 전격 공개

토크콘서트서 AI모델 4~5종 공개
추론모델 ‘엑사원 딥’ 통합 활용성↑
‘소버린 AI’ 강조...차기 원장에도 이목

LG AI연구원이 다음달 자체 개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의 최신 버전을 포함한 신규 AI 서비스를 대거 공개한다. 한국어 역량이 뛰어난 엑사원 기반 서비스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국가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버린(국가주권형) AI’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 AI연구원은 다음달 준비 중인 토크콘서트에서 ‘엑사원 4.0’과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기반 멀티 모델 등 4~5종의 신규 AI 서비스를 공개한다.

‘엑사원 4.0’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엑사원 3.5’의 후속작이다. LG AI연구원은 약 6개월 만에 신규 모델을

선보이며 성능 고도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월에는 추론 모델 ‘엑사원 딥(Deep)’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4.0 모델은 추론 모델 엑사원 딥과의 통합으로 활용성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추론 모델 엑사원 딥은 과학, 수학, 바이오, 화학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 그러나 거대언어모델(LLM)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답변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을 전문적인 영역과 일반적인 LLM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모델로 고도화해 엑사원의 이용을 확장시키겠다는 포부다.

오픈 소스로 공개된 엑사원은 실제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17일 기준 허깅페이스에서 엑사원은 누적 다운로드수 310만회를 기록, 국내 AI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엑사원에서 파생된 모델은 187개에 달한다.

앞서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국

가대표 AI’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은 2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에서 엑사원 딥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업의 대형 모델을 완전히 넘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추론 모델로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통합 AI 모델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엑사원 3.5는 4월 미국 스탠퍼드대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국내 AI 모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메타의 라마 3.1.3.2, 구글의 젠마 2, 알리바바의 큐웬 2.5 등 글로벌 오픈소스 AI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용성, 장문 처리 능력, 코딩, 수학 등에서 앞서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어 처리 역량도 가장 뛰어나,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추론 AI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모델이라는 평가다.

다음달 토크콘서트에서는 앞서 암

진단 AI 서비스 ‘엑사원 패스(Path)’의 업데이트 모델 2.0도 공개된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엑사원 패스’는 조직 병리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AI 모델이다. 최대 2주까지 소요되던 기존의 유전자 검사 기간을 단축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엑사원 패스 1.0’은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의료 AI 플랫폼 ‘모나이(MONAI)’에 등록됐다. 국내 AI 모델로는 최초로 2주 만에 1만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암 학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5’에서 ‘엑사원 패스 1.5’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2.0 모델의 성능과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의 활용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LG의 엑사원 개발이 배경훈 원장 주도로 이뤄져온 만큼 차기 원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LG그룹이 외부 AI 전문가를 영입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지 기자**

LG, 용량 확 줄인 세탁건조기 하반기 출시

세탁용량 11kg 제품 인증 획득
건조용량은 7kg 안팎으로 추정
가격·구독비 부담도 줄어든 듯

LG전자가 이르면 연내 '소용량'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이달 중순 세탁용량 11kg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KC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출시 예정인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다.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의 세탁용량은 모두 25kg이다. 11kg의 세탁용량을 갖춘 제품은 새로 출시할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처음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세탁건조기 중에는 중국 로보락 세탁건조기 세탁용량이 10kg(건조용량 6kg)으로 LG전자가 출시예정인 세탁건조기와 비슷하다.

중국 마이디어도 2월부터 쿠팡에서 세탁용량 12kg, 건조용량 8kg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판매했다. 현재 일시품절 상태다.

세탁용량이 줄어들에 따라 건조용량도 기존(13~15kg)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탁용량이 비슷한 로보락 제품 사양을 감안하면 LG전자가 출시 예정인 신제품 건조용량은 7kg 안팎으로 추정된다.



용량이 절반 넘게 줄어든 만큼 가격도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690만원)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430~450만원대)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독으로 판매할 경우 고객이 매달 부담하는 금액도 기존 제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G전자의 세탁기와 건조기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를 의미하는 인공지능(AI) DD모터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모터가 탑재된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옷감 재질과 무게에 맞춰 옷을 세탁하고 건조한다.

LG전자가 소용량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하는 건 1~2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은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제품 사양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LG시그니처 세탁가전, 美 영토 확장

로우스 매장에 공급 시작

LG전자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초(超)프리미엄 세탁기와 건조기를 출시했다.

LG전자는 미국 종합가전 유통업체 '로우스'에 'LG 시그니처' 29인치 세탁기와 건조기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 로우스는 미국 전역에 17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가 선보인 LG 시그니처 29인치 세탁기와 건조기는 미국 내 가정용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중 최대 용량이다. LG전자는 향후 미국에 대용량 세탁가전 라인업을 확대, 현지 세탁가전 시장에서 리더십을 지속한다는 계획

이다.

앞서 LG전자는 대용량 세탁 방식을 선호하는 미국 고객을 고려해 세탁기 기준 이전 모델 대비 10% 이상 용량을 늘렸다.

제품의 깊이(약 31인치)는 이전 모델 대비 5% 이상 줄여 대용량 제품이지만 주택 내 다용도실에 편리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만의 정제된 디자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제품 전면은 심플함을 강조하기 위해 버튼이나 다이얼을 빼고 7인치 터치 LCD 화면으로 미니 워시까지 한 번에 조작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LG 브라질 新공장 ‘속도’…美 洲 공급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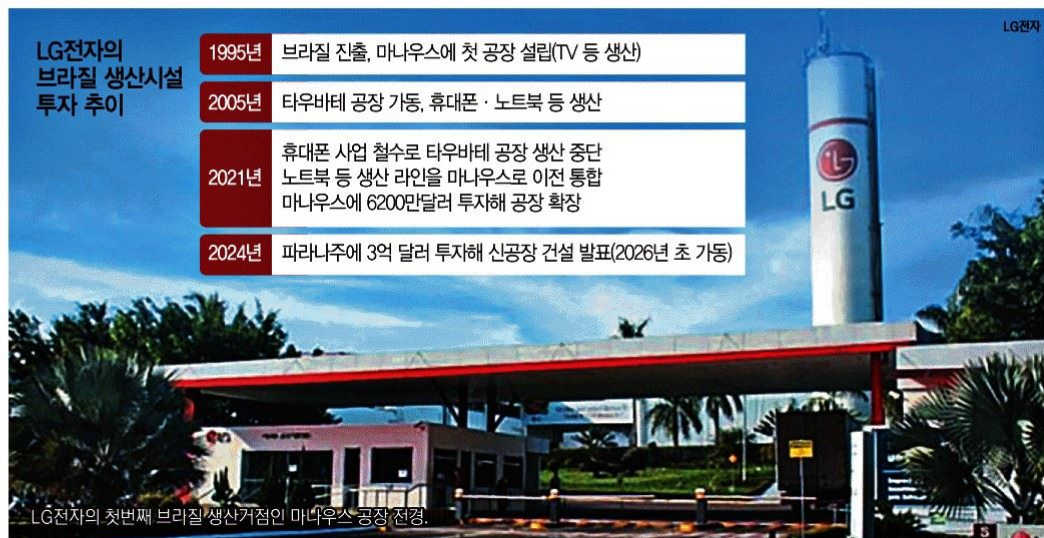
북미 이어 중남미 시장 정조준

현지 두번째 공장에 4000억 투자
내년 2월 가동 앞두고 사업 점검
기존 공장과 달리 백색가전 집중
美·멕시코 등 삼원화 전략 가속화

LG전자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미주 가전 공급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적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절감으로 만든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자 국가별 생산기지의 물량을 조정하는 '스위칭 생산체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시장 주도권을 지키는 한편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인 백승태 부사장은 최근 브라질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 또 브라질 파라나주 신공장 부지를 찾아 주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공장 건설 상황을 쟀다. 파라나 신공장은 LG전자가 작년년부터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현지 두 번째 생산 거점이다.

지난해 8월 첫삽을 뚫고 내년 2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공장은 77만 제곱미터(㎡) 규모로 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주방 가전을 우선 생산하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 등 생산 품목을 확대한다



는 계획이다. 브라질 첫 번째 생산거점인 마나우스 공장이 TV와 모니터·에어컨·오디오까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왔다면 신공장은 백색가전에 생산 물량을 집중했다.

브라질 가전공장 증설은 일차적으로 중남미 사업 현지화를 위한 것이다. 중남미는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며 가전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다. 가전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선진국과 달리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브라질 가전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까지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

벌 사우스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3%로 전망했다. 기존 주요 수출국인 북미(3.6%)와 유럽(3.9%)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 시장 공략 확대 의미도 담겨 있다. LG전자는 최근 미주 거점과 관련해 미국 테네시, 멕시코 레이노사·몬테레이·라모스, 남미의 브라질 마나우스·파라나 등 삼원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베트남 하이퐁에 있던 냉장고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낮추고 감축분을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테네시 공장 인근에 5만㎡ 규모의 대규모 창고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관세 상황에 따라 창고 부지

를 냉장고 및 오븐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공장 증설을 위해선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세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브라질 신공장을 대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용 칠러 등 신사업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엘솔루션은 올 초 현지에서 칠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질에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하이엘솔루션은 LG전자의 상업용 에어컨 설치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100% 자회사로 칠러를 중심으로 한 종합 토크(일괄 생산) 수주의 한 축이다. 노우리 기자

“제조업 위기, AX기반 K-팩토리 구축이 해법”

정대화 LG전자 사장 기조강연 “해외생산지로 확산 노력 필요”

“국내 제조업 위기를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K-팩토리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인공지능(AI) 공동포럼’에서 정대화 LG전자 사장은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역할과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구자균 산기협 회장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안현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부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사장은 ‘제조 AI를 통한 K-팩토리 확산으로 제조업 위기 돌파’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 국발 국내 제조업 위기에 선제적 대응 하기 위해 제조 AX 전략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제조 AX를 기반으로 국내 마더 팩토리를 고 생산성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K-팩토리’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해외 생 산지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마더 팩터리는 기업의 생산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모체 공장을 뜻한다.

정 사장은 “LG전자 생산기술원은 K-팩토리를 해외 생산지에 확산하기 위 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글로벌 AI 트렌드 및 인사이트’ 주제의 세션에서 조동연 SK텔레콤 SK AI R&D센터 담당은 자사 대규모 언어모델 ‘A.X’를 활용한 통화 요약, 회의록 요약 등 AI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시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파이낸셜
뉴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014면 종합

“AI·로봇·양자컴 상용화… IP 가치 성장”

강연 장진호 LG전자 IP센터 상무

“명품의 브랜드 가치도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른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세계 국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IP)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더 확장될 것이다.”

장진호 LG전자 IP센터 상무는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IP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금 수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기업이 IP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주요 가치 중 하나는 ‘수익 창출’이다.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통신, 와이파이 등과 같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특허를 내고 라이선싱 비용을 받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장 상무는 “명품은 누구나 다 쓰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특허는 가급적 심플하고 여러 회사가 활용할 수록 좋다”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IP를 사용할 것인지 등 우리가 IP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P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소수의 원천, 핵심 특허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에 대한 특허를 선제적으로 취득하고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식이다.

최초 특허 출원 및 상품화 등을 통해 유사·모방 제품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있다. 단속에는 경고장 발송, 소송, 세관 압류, 플랫폼 업체 협력 등 다양한 절차가 활용될 수 있다.

장 상무는 “자사 또한 냉장 도어 제빙 기술을 개발한 건이 있었는데 여러 경쟁업체에서 라이선스를 달라고 했지만, ‘특허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업부 판단이 있어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P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무한하게 확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 상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AI, 로봇,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이 나오는 시대에 IP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가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트럼프 관세에 달린 LGD 실적 반등

2분기 실적 적자전환 전망
OLED시장 확대는 긍정적
TV·스마트폰 수요 변수로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리스크가 불거져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 스마트폰 패널 수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스마트폰·IT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동기 대비 6%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요 흐름을 관망하며 발주를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IT 기기에 대해 7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LG디스플레이는 해당 품목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지만, 관세 부담이 완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 패널 출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이유로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335억원)와 달리 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7월 시행을 예고한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하반기 세트업체의 발주 계획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디스플레이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형 OLED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수년간 액정 표시장치(LCD) 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OLE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전체 매출 중 OLED 비중은 6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한 비중은 55%였던 것을 감안하면, OLED 사업이 회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가 연초 목표로 내건 연간 흑자 전환 달성 여부는 결국 미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담이 현실화 되면 중소형 OLED 수요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반대로 부담이 해소될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 애플 아이폰17 시리즈용 패널 공급 비중을 전작 대비 유의미하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OLED 부문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져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변수만 없었다면 LG디스플레이는 연내 흑자 전환 목표를 올 상반기 중에도 조기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분기에는 일시적인 후퇴가 예상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기대 이상의 실적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

성큼 다가 온 ‘슈퍼사이클’... “글로벌 공략 전초기지로 성장”

G 그린 시프트

LG엔솔 브로츠와프 공장

‘글로벌 배터리의 심장, 세계 최고의 배터리는 여기서 시작된다.’(The Heart of Global Batteries, The World's Best Battery Starts Here.)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1번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글로벌 시장선도에 대한 야심이 두 문장에 담겼다. 2016년 설립된 이곳은 명실상부 LG에너지솔루션 유럽공략의 거점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때 브로츠와프 공장의 가동률은 5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둔화) 영향으로 배터리 수요가 꺾인 상황에서 C ATL·BYD 등 중국 기업들의 부상이 거셌기 때문이다. 얄친 데 덮친 격으로 내연 기관 친화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제출법안 후 전기차·배



터리산업의 미래에 대한 물음표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브로츠와프 공장에 대한 과감한 리밸런싱(라인 재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삼원계 외에 중저가 LFP(리튬·인산·철) 생산라인을 깔고 전기차 라인 일부를 ESS(에너지저장장치) 용으로

ESS 등 리밸런싱 성공적... ‘엔드투엔드’ 생산 체계 강점 현지 국영전력공사와 동맹... 獨·英·伊 등 신규시장 모색

전환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르노에 전기차용 LFP를, 내년부터는 현지 국영전력공사 PGE에 ESS용 LFP를 납품한다.

공장의 외관만 봐선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100ha(약 30만2500평)에 달하는 광활한 공장에는 직원들과 트럭들만 오갈 뿐이다. 외적인 설비투자보다 내실추구에 힘을 주는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다.

업계는 브로츠와프 공장의 생산능력이 이미 연 90GWh(기가와트시) 수준에 달했다고 본다. 전극공정부터 셀, 모듈, 팩 조립까지 전과정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생산체계도 갖췄다.

공장 내부에선 치열한 변화가 한창이다. 이장하 브로츠와프법인장(사진)은 “현재는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1번 게이트 전경. ‘글로벌 배터리의 심장’(The Heart of Global Batteries)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설물이 눈에 띈다. /브로츠와프(폴란드)·최경민 기자 brown@

이 법인장은 “PGE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 진행한 ESS 계약 중 최대규모”라며 “현재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신규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SS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고객사 문의가 이어지고 논의가 진행된다”고 힘을 줬다.

ESS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기차 캐즘 종료 국면까지 생존에 성공해 ‘배터리 슈퍼사이클’에 올라탄다는 전략이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 PGE 프로젝트 수주에도 EPC(설계·조달·시공)까지 포함한 풀패키지를 폴란드 측에 제시하게 주효했다. 중국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도 필수과제다. 이 법인장은 “핵심사업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고 삼원계 역시 주요 생산품목”이라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츠와프(폴란드)·최경민 기자 brown@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배치될 폴란드 북부의 자르노비에츠 ESS단지 부지. /자르노비에츠(폴란드)·최경민 기자 brown@

“발트해의 ‘바람’과 ‘햇빛’, 에너지로 저장”

PGE ESS단지 연내 착공

호수가에 부는 강한 바람이 거칠없이 얼굴을 때렸다. 지난 11일 찾은 폴란드 북부의 자르노비에츠. 폴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PGE가 추진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단지가 들어설 5ha(약 1만5000평) 규모 부지다.

여기에 장착될 ESS 배터리는 560km 떨어진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LG에너지솔루션과 PGE는 지난 3월 유럽 최대수준인 981MWh(메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했다. 계약금액은 3억7200만유로(약 6000억원)에 달했다.

부지는 평탄화 등이 이뤄져 광활한 느낌을 줬다. 공사에 돌입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204개 저장장치와 변전소에 연결된 1개 고전압 스테이션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돼 내년 8월에는 저장장치와 변전기 등이 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PGE 측은 기대한다. 2027년 2분기에 상업 가동하는 게 목표다.

현장에서 만난 PGE의 야채 아로노

프스키 수력발전부 이사는 “ESS 프로젝트 중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이곳 자르노비에츠”라고 밝혔다. 폴란드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뜻이다. PGE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28TWh(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풍력 등은 기후와 환경

LG엔솔과 배터리 공급 계약 981MWh로 유럽 최대 규모 2027년 2Q부터 ‘상업’ 가동 “안전적인 전력생산 등기대감”

에 따라 전력생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에 대규모 ESS단지를 구축해 전력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PGE가 자르노비에츠 호수 인근에 ESS단지를 가장 먼저 짓기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PGE의 야누슈 바우진 전·통제 수석전권가는 주변 지도를 가리키며 “발트해 인근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 북부 내륙의 태양광단

지, PSE(폴란드전력송전공사)가 관장하는 스위치(개폐기) 야드도 모두 근처에 있다”며 “ESS 배터리는 이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래에너지믹스 구성은 폴란드만 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 ESS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AI(인공지능) 사업이 커지면서 ESS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 관련 시장규모가 이미 36억8000만달러(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는 최근 스페인·포르투갈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에너지 저장수단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인접국간 전력연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아로노프스키 이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든 전기를 저장하고 전력체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ESS 배터리의 역할”이라며 “배터리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으며 활용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자르노비에츠(폴란드)·최경민 기자 brown@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서울경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A17면 산업

다이소 손잡은 LG생건

전용 건기식브랜드 론칭

‘이너뷰 바이 리툼’ 8종 첫선

LG생활건강은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 식품 브랜드 ‘이너뷰 바이 리툼(INNER BEAUby re:tune)’을 론칭하고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이 건기식 분야에서 다이소 전용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이소 온·오프라인몰에서 판매된다.

이너뷰티 제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2중 피부 기능성 콜라겐 2000mg을 함유한 ‘콜라겐 더마스틱’과 피부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120mg 담은 파인애플맛 ‘히알루론산 더마스틱’ 등을 선보였다.

또 웰에이징 제품으로 개별인정형 원료(제2024-25호)인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 함유)과 비타민A를 함유한 2중 눈 건강 기능성 제품 ‘루테인 지아잔틴’, 액상 제형으로 흡수가 빠른 마시는 다이어트 건기식 ‘다이어트 가르시니아’ 등을 선보였다. 캡슐 형태인 루테인 지아잔틴을 제외한 이들 제품은 액상 스틱과 분말 제형으로 1회 분량씩 소분해 휴대가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리툼 브랜드 관계자는 “이너뷰 바이 리툼 제품들은 우수한 품질에 가성비까지 갖춰 매일 ‘이너뷰티-웰에이징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며 “고객 니즈에 맞는 유효 기능 성분을 부담 없이 보충할 수 있는 이너뷰 바이 리툼을 통해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홍범식 대표 “이기는 R&D로 기술적 해자 만들자”

<LG유플러스>

마곡사옥서 2분기 타운홀미팅
고객 필요한 기술 빠르게 구현
ARS 개인화·AI비즈콜 등 언급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LG유플러스만의 ‘위닝(Winning·이기는) 연구개발(R&D)’ 전략을 강조했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는 주문이다.

LG유플러스는 마곡사옥에서 2분기 전사 타운홀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사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창사 처음으로 전사 R&D 핵심인력이 모여있는 마곡사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고객 세그먼트에 집중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발굴한 사례로 음성 ARS 개인화, 어린이집 대상 AI비즈콜을 언급하며 “우리의 전략이 실행돼 한 발짝씩 발전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2분기 타운홀미팅에서 전사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구성원의 잠재력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가 경쟁사를 앞서나갈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플러스만의 위닝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닝 R&D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

고 이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고객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홍 대표는 “위닝 R&D 전략을 바탕으로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높은 진입장벽)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 기여도와 차별화된 가능성을 고려해 소수의 ‘위닝 테크’를 선별하고, 선별된 기술에 자원을 선택·집중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그 기술을 최적화할 3B(Build·Buy·Borrow) 역량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CTO 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스템과 네트워크 부문에서 추진 중인 ‘자율 운영 네트워크’ 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례를 소개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투자사 설립한 권영수 “미래가치 높은 스타트업 지원”

<前 LG 부회장>

2023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CEO)직을 마지막으로 44년 동안의 ‘LG맨’ 생활을 마무리한 권영수(사진) 전 LG 부회장이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업계에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부회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재계 경험을 토대로 젊은 창업가가 이끄는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권 전 부회장은 지난해 ‘뉴웨이브원(New Wave1)’을 창업하고 투자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권 전 부회장이 설립한 이 회사에는 그와 함께 퇴임한 이방수 전 LG에너지솔루션 경영지원센터장(사장)과 권 부회장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인 이영세 전 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이 합류했다.

‘뉴웨이브원’ 창립
이방수 전 LG엔솔 사장 등 합류
40년 넘는 산업계 경험 바탕으로
후대 양성하고 국가 경제 이바지
투자 외 경영컨설팅도 제공 계획



권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투자자들도 이어주려 한다”면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해 이들과 산업계를 연결해주면서 어떻게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브원은 권 전 부회장 등 공동 설립자들이 출자한 자기자본을 활용해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가고 있다. 이들이 산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했던 경험을 토대로 일반 주식·펀드 투자를 진행중이며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꿈꾸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회사는 이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올바른 자문 활동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목적에도 △기업 경영 컨설팅 △투자자문 및 재무 컨설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명시했다.

권 전 부회장은 LG그룹에서 전기전자·통신·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두루 거쳤다. 그는 1979년 LG전자 전신인 금성사에 입사한 이래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LG디스플레이 CEO, LG유플러스 CEO,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를 마친 권 전 부회장은 동문회나 강연 활동도 최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는 올 초 서울대 경영경제동창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이달 KAIST 동문 창업 생태계 모임(KOC)에서 리더십 강연을 하며 예비 창업가들을 만나고 있다.

이충희 기자

SIGNAL 6월 24일 14시 43분 게재